



프랑스, 벨기에, 룩셈부르크, 텍시아 은행 처리 방안 합의

이정환 선임연구원

- 10월 9일 프랑스, 벨기에, 룩셈부르크 정부는 파산 위기에 처한 텍시아 은행의 처리 방안에 합의하였고, 텍시아 은행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함.
 - 텍시아 은행을 3개국 내 사업부문별로 분할 매각하기로 함.
 - 프랑스 국영투자기금인 예금공탁금고(CDC)와 우체국은행은 프랑스 지방자치단체 대출을 전문적으로 해온 텍시아 크레디트 로칼(DCL)을 인수하기로 함.
 - 벨기에 정부는 텍시아 벨기에 지부 인수에 40억 유로를 투입하고 이를 국유화하기로 결정함.
 - 룩셈부르크 정부가 포함된 투자자 컨소시엄은 텍시아의 룩셈부르크 내 소매금융 자회사인 인터내셔널 뱅크 인 룩셈부르크(IBL)를 매입하기로 결정함.
 - 3개국은 그밖에 부실자산만을 모아 정부가 보증하는 배드 뱅크를 설립하고, 향후 10년간 최대 900억 유로의 연대 보증을 하기로 함.
 - 보증비율은 프랑스가 36.5%, 벨기에가 60.5%, 룩셈부르크가 3.0%로 결정됨.
 - 배드뱅크로 넘겨질 부실자산은 1,200~1,90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.
- 프랑스 총리는 분할 매각과 연대 보증을 실행하면 텍시아 은행의 예금 안정성이 강화되고, 유동성이 확충되며, 주변국 국채 익스포저가 축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.
 - 텍시아 은행은 그리스발 재정위기 이후 유로존 핵심 국가 은행 중 처음으로 파산에 근접한 사례이기 때문에 텍시아 은행 해법이 향후 은행위기 처리에 대한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주목됨.
 - 프랑스, 벨기에, 룩셈부르크는 텍시아 은행 해결에 정치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시 하겠다고 밝힘.
- 텍시아 은행의 자산규모가 크고 유럽의 수많은 은행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도산할 경우 프랑스, 벨기에, 룩셈부르크 등 3개국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도 연쇄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.

- 2011년 6월 말 현재 텍시아 은행의 총 자산은 5,180억 유로로 그리스 은행들의 총자산 규모와 비슷하고, 지난 2년 6개월 동안 구제금융을 받은 아일랜드 은행들의 총자산보다 더 많음.
- 그러나 텍시아 은행 구제금융 지원은 프랑스, 벨기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여 이들 국가의 신용등급을 하락시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임.
 - 무디스와 S&P로부터 AAA 등급을 얻고 있는 프랑스는 국가 신용등급 강등 없이 금번 텍시아 은행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상과제이나 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.
 - 텍시아 크레디트 로칼(DCL)은 텍시아 은행이 갖고 있는 유럽 국가 채권(950억 유로)¹⁾ 중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큰 규모의 자금이 투입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.
 - 10월 7일 무디스는 유럽 재정위기 확대로 추가적인 은행권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벨기에의 국가 신용등급(Aa1)의 강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.
 - 벨기에의 공공부채 수준, 텍시아 은행 구제금융 지원 규모 등이 신용등급 강등을 결정하는 주요 항목이라고 언급함.

(Wall Street Journal 10/9, Bloomberg 10/10)

1) 텍시아 은행이 보유한 그리스, 이탈리아, 포르투갈, 스페인, 아일랜드 국채의 규모는 210억 유로임.